

스키활강 김선주 0.26초차에 웃었다

동계 아시안게임 첫 도입 종목서 한국 첫 금 깜짝 선물

Astana-Almaty
2011

한국 알파인 여자 스키의 베�팅 김선주(26·경기도청·사진)가 제7회 아스타나-알마티 동계아시안게임에서 대표팀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김선주는 지난 31일 알마티 침불락 알파인 스포츠 리조트에서 펼쳐진 알파인 스키 활강에서 1분37초61만에 결승선을 통과해 1위를 차지했다.

9명의 선수 가운데 맨 마지막에 활강을 한

김선주는 앞서 1위였던 카자흐스탄의 리우드밀리 폐도토바에 0.26초 차로 앞서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로써 김선주는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활강에서 첫 여자 금메달리스트의 주인공이 됐다. 한국의 정혜미(22·한국체대)는 1분40초34의 기록으로 4위를 차지했다.

메달 후보로 거론되지 않던 김선주는 알마티에 도착한 뒤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며

서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29일 훈련에서는 1분37초92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고 30일에도 폐도토바를 제치고 1위로 골인하면서 대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주목받기도 했다.

김선주는 중앙대 재학 시절인 2007년 창춘 동계아시안게임 대회전에서 동메달을 따면서 주목받았다. 지난해 밴쿠버 올림픽에는 국내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국제스키연맹(FIS) 포인트를 따내 자력으로 출전해 회

전과 대회전에서 각각 46위와 49위를 차지했다.

앞서 열린 남자부 경기에서는 한국 스키의 기대주 정동현(23·한체대)이 1분29초78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동현은 1위를 차지한 카자흐스탄의 코시킨 드미트리에게 2초26으로 뒤진 채 결승선을 통과했다.

김선주와 정동현은 1일 슈퍼대회전에서 다시 메달 사냥에 나선다. 국내에 국제대회를 치른 만한 코스가 없는 활강에서 메달을 딴 만큼 슈퍼대회전에서도 좋은 성적이나올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빙속 간판 이승훈 5000m 금빛 질주

쇼트트랙 1500m 男女 동반 금메달

밴쿠버동계올림픽 영웅 이승훈(23)이 한국 빙속 장거리 사상 처음으로 동계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쇼트트랙은 남·여 1500m에서 동반 우승을 차지했다.

이승훈은 지난 31일 아스타나 실내스피드 스케이팅장에서 펼쳐진 스피드스케이팅 5000m에서 6분25초55의 아시아최고 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이 올해 7회째를 맞는 동계아시안개

임 스피드 장거리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승훈으로서도 동계아시안게임 첫 메달이다.

동계아시안게임 5000m와 1만m에서는 그동안 일본과 카자흐스탄이 금메달을 독식했고, 지난해에는 일본의 히라코 히로키가 두 종목을 훨씬 이겼다.

한국 스피드스케이팅의 유망주 김보름(19·정화여고)은 스피드스케이팅 3000m에서 깜짝 은메달을 땄다.

김보름은 자신의 최고기록인 4분24초37을 훌쩍 넘기는 4분10초54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기록으로 금메달을 딴 일본의 호즈미 마사코에는 2초72 뒤졌다.

쇼트트랙에서도 금메달 두 개가 쏟아졌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막내 노진규(18·경기고)와 한국 여자 쇼트트랙의 '미완의 기대주' 조해리(25·고양시청)도 1500m에서 동반 금메달 레이스를 펼쳤다.

노진규는 지난 31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실내사이클경기장에서 벌어진 쇼트트랙 남자 1500m 결승에서 1위로 골인, 이번 대회 한국 쇼트트랙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지난해 처음으로 태극 마크를 단 노진규는 1992년 7월생으로 지난해 10월 열린 대표선발전에서 고른 활약을 펼치면서 2위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내부 선발전에서 쟁쟁한 선배들을 제치고 당당히 남자 1500m 대표로 뽑힌 노진규는 지난 12월 월드컵 4차 대회에서 계주를 포함해 혼자 금메달 3개를 거둬들인데 이어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빛 질주를 완성하면서 앞으로 한국 남자 쇼트트랙을 이끌어갈 새 스타의 탄생을 알렸다.

조해리도 쇼트트랙 여자 1500m 결승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밴쿠버 동계올림픽 실격의 아쉬움을 달랬다. 조해리는 지난해 밴쿠버 올림픽 여자 3000m 계주에서 후배들과 호흡을 맞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으나 심판의 석연치 않은 판정에 실격당하면서 눈앞에서 메달을 놓쳤었다. /연합뉴스

왓슨, 파마스 투어 우승 앤서니김 6위·최경주 29위

'원손잡이 장타자' 베버 왓슨(미국)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마스 인슈어런스 오픈에서 마지막 헐리우드 페어웨이 헛방으로 우승컵을 거머쥐었다.

왓슨은 1타차로 헛기던 18번홀(파5)에서 4m짜리 버디퍼트를 성공하며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적어내 밀 블루스(미국, 15언더파 273타)을 간발의 차로 따돌렸다.

기대를 모았던 글프황제 다이거 우즈(미국)는 3타를 잊고 공동 44위(1언더파 287타)까지 떨어졌다. 재미교포 앤서니 김(26·나이키 고플)은 10언더파 278타를 기록해 공동 29위(3언더파 285타)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최경주(41)는 마지막날 2타를 줄이며 공동 29위(3언더파 285타)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루키 강성훈(24)은 공동 51위(이븐파 288타)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선동열 VS 홍명보' 스파이크 대결

6일 V리그 올스타전 4대 프로스포츠 스타들 참가

'선동열 대 홍명보'

결코 이뤄질 수 없을 것만 같던 두 '거성'의 맞대결이 프로배구 올스타전 무대에서 성사됐다.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특설코트에서 열리는 2010-2011 프로배구 V리그 올스타전에는 본 경기만큼이나 재미있는 '번외경기'가 준비돼 있다.

각기 다른 종목을 대표했던 원년의 스타들이 배구코트에서 아직 죽지 않은 운동신경을 뽐내는 장면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31일 4

대 프로스포츠 스타 훈합경기에 나설 선수 24명과 감독, 심판 명단을 발표했다.

이회택 대한축구협회 부회장과 최종욱 전 남자 배구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K스 타팀에는 홍명보 올림픽축구대표팀 감독과 김태영 코치가 선수로 합류했다.

여기에 김호철(현대캐피탈) 감독 등 현직 프로배구 사령탑들도 오랜만에 물을 뿐다. 문용관, 김세진 KBS N 해설위원과 이종경, 마나길 KOVO 경기운영위원, 정의탁 울산삼산고 감독, 최현식 인하대 감독도 K스타 소속으로 참가한다.

이에 맞서는 V스타 팀에는 김재박 전 LG트윈스 야구단 감독과 진준택 전 남자 배구대표팀 감독이 함께 지휘봉을 잡았다.

V스타는 선동열 전 삼성 감독을 비롯해 이순철 MBC 스포츠플러스 야구해설 위원과 지난해 은퇴한 양준혁 SBS ESPN 해설위원이 뛰는 '야구팀'이다.

프로배구팀 감독으로는 남자부 1위인 대한항공의 신영철 감독과 3위팀 LIG손해보험의 김상우 감독이 나섰다.

농구 대표로는 선수 시절 소녀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문경은 SK 나이츠 코치와 우지원 SBS ESPN 해설위원이 각각 K스타와 V스타 소속으로 출격해 맞선다. /연합뉴스

메이저리거 빅스타 '라킨' 광주 온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와 만남
17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서



는 자신 외인을 출시해 수익금 전액을 펌피안 스포츠 재단에 기부하는 등 사회 기부활동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미국 국부부 프로그램인 '스포츠 엔보이(Sports Envoy)'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몬트리올 익스포스에서 뛰었던 조 로건도 함께 한다. 스포츠 엔보이는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 및 지도자들이 민간 외교 사절단으로 나서 다른 나라 청소년들에게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다양성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는 피겨 스타 미셸 완이 광주를 찾았었다.

2008년에는 '베리 라킨의 멜롯'이라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법원사거리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 물건리스트 / 법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코리시설/월통 대표이사 010-7570-7525

주택설/상가

경기도 010-5879-0005

광주전 011-684-3886

경매호전부이사 010-7570-3886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 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근린시설

서구 화정동 토지 488평 건평 759평

3층건물 감정가 27억 최저가 19억

근린주택

담양군 금성면 윤율리 토지 209평 건물 66평

현식단운영장 8천3백만

근린상가

· 남구 백운동 토지 105평 건물 82평

감정가 3억5천만 최저가 1억9천만

· 서구 광천동 토지 305평 건평 228평

전문상담 010-7570-7525

상업용지

광산구 쌍암동 내대지 198평

감정가 8억 최저가 5억2천만

주유소

서구 세하동 토지 523평 건물 138평

신광주역부근 감정가 12억 최저가 8억6천만

기타·토지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대지 154평

전문상담 010-7570-7525

▶이외 상단불건, 쌈토지 다수보유, 소액투자상당

광주 서구 미륵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신진공인중개사 (임대전문)

대불산단 공장 매매(임대가능)

▶공장용지 : 15.000평

▶건 물 : 900평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고흥군 금산면 토지 매매

▶계획관리지역 : 면적-14.000평, 8,500평

(10동 경사, 2차선 도로접)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접) (700평)

▶자연녹지 : 700평 ▶일반공업지역 : 800평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립동 토지매매

▶대 지 : ① 500평 ② 1200평

▶준주거지역(동립2지구 건너편)

▶건 물 : ① 30평, 청고80평

② 30평, 공장200평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광산구 월전동 토지매매

▶대 지 :